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창립기념토론회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7시
장소: 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601호 강의실
주최: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후원: 진보신당 관악구의원 나경채

□ 토론회 □

사회자	정종권 (오늘연구소 이사)
발제자	이봉화 (오늘연구소 소장)
토론자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의원) 서영표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주희 (관악사회복지 상근활동가)

□ 글 순서 □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결과	1
[첨부1]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업체 실태조사 결과	20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 방안	23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방법	28
[첨부2]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권고안	33
[첨부3] 재활용품 수거업체 실태조사 권고안	37
[토론문1] 김상철	38
[토론문2] 나경채	47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실태 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10년 9월 29일(수)~10월 29일(금)
- 조사방법: 재활용품 수거업체(고물상) 주변에서 무작위 면접조사
- 조사대상: 관악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어르신들
- 통계방법: 단수응답의 경우에는 합계와 백분율을 계산했고, 복수응답의 경우에는 합계와 백분율을 계산하지 않았다.

1. 응답자의 특징

(1) 총 127명을 조사했다.

(2) 연령

75~79세 구간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았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78%였다.

고령이나 노동능력 저하를 이유로 임금노동시장, 공공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인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비공식노동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60세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합계
명	5	7	16	28	39	21	9	2	127
백분율	3.9%	5.5%	12.6%	22.0%	30.7%	16.5%	7.1%	1.6%	100.0%

(3) 성별

여성이 89명(70.1%)이었고, 남성이 38명(29.9%)이었다.

응답자 중 여성노인의 수가 훨씬 많은 이유는, ① 노령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② 여성노인에게 진입장벽이 낮거나 없는 재활용품 수거노동의 특징, ③ 체면 등의 이유로 면접에 응하지 않는 남성노인이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4) 거주지

응답자 중 성현동과 청림동에 사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 일하시는 중에는 인터뷰 진행이 어려워 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어르신들이 만났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없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림동 거주자를 만나기 어려웠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활용품을 모아두면 수거업체에서 트럭을 가지고 와서 구매해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성현동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경사지가 많아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반하기 힘든 지역이어서, 성현동 소재의 수거업체에서는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난향동, 삼성동, 주택 밀집지역인 은천동, 서원동,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적은 보라매동, 청림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상업지역인 신림동, 신원동, 고물상이 없는 지역인 난곡동, 남현동, 대학가인 서림동, 대학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명	신림	보라매	은천	청림	중랑	행운	낙성대	인현	남현	신사	조원	미성	난곡	난향	서원	신원	서림	삼성	대역	기타	합계
명	2	12	10	13	6	5	5	4	2	3	5	9	2	8	10	2	4	14	4	7	127
비율	1.6%	9.4%	7.9%	10.2%	4.7%	3.9%	3.9%	3.1%	1.6%	2.4%	3.9%	7.1%	1.6%	6.3%	7.9%	1.6%	3.1%	11.0%	3.1%	5.5%	100%

(5) 인구지리적 특징

재활용품 수거업체 업주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노동을 새로 시작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조원동의 H업체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어르신들 중 70%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들이라고 했다. 어르신들 설문조사 응답자 중 3명이 한국계 중국인(여성 2명, 남성 1명)이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1명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조원동, 삼성동 소재 수거업체 업주들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참여비율도 10% 정도가 된다고 한다.

2. 노동 패턴

질문 1. 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위의 응답자 특징의 거주지 통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서 통계표는 생략했다. 즉, 어르신들의 거주지역과 수거구역이 일치하거나 인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 19쪽,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업체 실태조사 결과

○ 예외인 분이 1명 계셨는데, 따뜻한 계절에는 신림동에서 노숙을 하고, 추워지면 구로동의 친척집에 기거하며 수거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질문 2.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5년 미만 (2) 5~10년 (3) 10~15년 (4) 15~20년 (5) 20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응답한 분들이 81명(63.8%)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1년 미만인 분들이 많았다.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인상되었기 때문에, 새로 수거노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표] 수거노동을 해온 기간

기간	5년 미만	5~10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합계
명	81	24	9	4	9	127
백분율	63.8%	18.9%	7.1%	3.1%	7.1%	100%

○ 특히, 한국계 중국인 어르신들이 수거노동에 새롭게 진입하는 현상이 눈에 띄었다.

질문 3. 하루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1) 4시간 미만 (2) 4~8시간 (3) 8~12시간 (4) 12시간 이상

○ 조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장시간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었다. 8시간 이상 일하고 계신 분들도 46명(36.2%)이나 되었다. 가게나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하루 종일 불규칙하게 여기저기서 배출되므로 수거구역을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하루 노동시간

	4시간 미만	4~8시간	8~12시간	12시간 이상	기타	합계
명	44	33	23	23	4	127
백분율	34.6%	26.0%	18.1%	18.1%	3.1%	100%

○ 기타: 이웃이 가져다 주거나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질문 4.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일주일에 며칠 일하십니까?
 (1) 4일 이하 (2) 5일 (3) 6일 (4) 7일

○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명절(절날, 추석)을 제외하면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분들이 76명(60.8%)나 되었다. 쉬는 만큼 생계에 위협이 오고, 연속적으로 일을 쉬면 경쟁자들에게 수거구역이나 단골가게를 뺏기기 때문이다.

○ 6일을 일한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는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주일 간 노동일수

	4일 이하	5일	6일	7일	합계
명	29	5	17	76	127
백분율	22.8%	4.0%	13.6%	60.8%	100%

3. 계절에 따른 변동

질문 5. 재활용품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질문 5-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봄과 가을을 선택한 이유는 날씨가 좋아서 수거노동을 하기가 수월하고, 이사나 전축을 많이 하는 계절이라 재활용품 양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음료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캔이나 병, 페트병 등이 많이 배출된다.

[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 모름
명	20	31	33	0	60

○ 기타 의견으로 명절 전후로 종이박스가 많이 나오며, 수거노동은 계절보다는 경기 영향을 많이 탄다는 답변이 많았다. 경기 침체로 인해 수거노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어느 계절 할 것 없이 재활용품 수거량이 줄었다는 답변도 많았다. 어느 계절이 나은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많았다.

4. 주 노동시간대

질문 6. 재활용품 수거는 하루 중 언제 주로 하십니까?

(1) 새벽 (2) 오전 (3) 오후 (4) 야간 (5) 하루 종일

○ '질문 3'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게, 조사 전의 가정과 예비설문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 많이 나왔다.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이 64명으로 어르신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된다.

○ 수거노동의 성격 상,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딱 떨어지게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어서 복수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의견에서도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지 않고 일한다는 분들이 많았다.

[표] 노동시간대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하루 종일	기타
명	3	17	35	11	64	5

○ 다른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응답 문항을 "(1) 야간~새벽 (2) 새벽~오전 (3) 오전 (4) 오후 (5) 오전~오후 (6) 오후~야간 (7) 수시로"로 구성하고 '질문 3' 바로 뒤에 배치 하는 것이 수거노동의 성격에도 부합하고 설문외 흐름도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²⁾

5. 장갑 착용 여부와 그 이유

질문 7. 장갑을 끼고 일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 7-1.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갑 사는 데 돈이 드니까 (2) 불편해서 (3) 기타 ()

○ 자상 예방을 위해 장갑 착용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질문인데, 비교적 잘 행 거서 착용하고 계셨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장갑 착용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장갑 착용 여부

	예	아니오	합계
명	82	45	127
백분율	64.6%	35.4%	100%

2) 32쪽,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권고안

○ 실태조사를 어느 계절에 하나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문항이다.

[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돈이 드니까	불편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명	5	34	3	3	45
백분율	11.1%	75.6%	6.7%	6.7%	100%

○ 경제적인 이유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5명으로 전체 응답자 127명 중에서 보자면 3.9% 정도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분들에게는 실태조사 후에 장갑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6. 건강 실태

질문 8.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복수 선택)

(1) 없다 (2) 압 (3) 근골격계질환(관절염, 골다공증) (4) 당뇨병 (5) 간염
(6) 백내장 (7) 치아 질환 (8) 호흡기계질환(천식, 결핵)
(9) 순환기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 (10) 기타 ()

○ 질환이 없다고 답변한 어르신들은 19명(14.9%)에 불과했다. 근육통, 관절염,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7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2%를 차지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당뇨병, 순환기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도 많았다.

[표] 질환 유무와 종류

	없다	근골격계 질환	당뇨병	백내장	치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기타	모름
명	19	79	22	9	12	2	32	27	3

○ 아드님과 함께 한국에 와계신 한국계 중국인 할머니 한 분은, 백내장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 수술비 때문에 수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셨다. 긴급지원이 시급하다.

질문 9. 일하시는 중, 식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1) 도시락 (2) 식당 (3) 편의점 (4) 고물상 (5) 기타 ()

질문 9-1. 식사로 어떤 것을 드십니까?

(1) 밥 (2) 라면 (3) 빵, 우유나 음료수 (4) 기타 ()

- 실태조사 중에 추가한 질문이어서, 초기 응답자 6명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다보니,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한 “집”을 답변 문항으로 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집”이라고 응답한 숫자는 “기타” 답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답변자 중 93명(73.2%)이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다. 주거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서 식사를 하고 다시 나오는 패턴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분이 7명 계셨고 굶는 분도 3명 계셨다.
- 뒤에 나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권고안’에는 오늘날구조의 시책오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표] 식사 장소

	도시락	식당	고음상	기타	합계
명	3	2	1	115	121
백분율	2.5%	1.7%	0.8%	95.0%	100%

○ 일하다가 밖에서 식사를 사드시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렴한 분식이나 빵 등으로 식사를 때우시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집이나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밥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스러웠다.

[표] 식사의 종류

	밥	라면	빵+우유나 음료수	기타	무응답
명	113	6	3	5	1

○ 집에서 밥을 드시는 경우에도 반찬 수가 1~2개거나 라면을 드시는 분도 많아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

7. 부상 실태

질문 10.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손으로 직접 (2) 카트 (3) 리어카 (4) 트럭 (5) 기타 ()

○ 리어카에 비해 가벼운 카트 이용률(70.9%)이 훨씬 높게 나온 이유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분들 중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손으로 직접 나르거나 카트를 이용하신다고 복수 응답한 분이 2명 계셨다.

[표] 재활용품 운반 수단

	손으로	카트	리어카	트럭	기타
명	2	90	37	0	0

○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트럭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지만, 트럭 이용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30~50대 남성들이어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질문 11.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 11-1.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복수 선택)

(1) 종이에 손을 베었다 (2) 손목, 허리, 발목 등을 베었다
(3)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당한 적이 있다 (4) 기타 ()

질문 11-2.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복수 선택)

(1) 타박상 (2) 출혈 (3) 골절 (4) 뇌진탕 (5) 기타 ()

[표] 상해 경험

	예	아니오	합계
명	53	74	127
백분율	41.7%	58.3%	100%

○ 손을 베는 적이 있다는 답변이 의외로 적었다. 어르신들은 가벼운 자상을 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교통사고 경험자가 19명(14.9%)이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께는 무단횡단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운전자 교육에서 주의 의무 강조, 경찰서에는 어르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표] 상해 유형

	손을 베었다	손발목 등을 베었다	교통사고	기타
명	12	15	19	17

○ 기타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이 13명으로 상당수 계셔서, 설문지 권고안에 반영했다. 어지럼증, 당뇨병 등으로 일을 하다 쓰러진 분, 카트 충돌로

다치신 경우도 있었다.

[표] 교통사고 경험자의 상해 정도

	타박상	출혈	골절	뇌진탕	기타
명	5	3	7	0	5

8. 경쟁 강도

질문 12. 같은 구역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1) 없다 (2) 1~2명 (3) 3~4명 (4) 5명 이상

- 수거노동에 종사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총규모를 모른 채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택지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구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 재활용품 수거업주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악구에서 수거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총수는 약 1,000명 규모로 추정되며, 동 숫자(21개)로 나눠봤을 때 동별로 평균 48명의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함을 알 수 있다.

[표] 경쟁자 수

	없다	1~2명	3~4명	5명 이상	모른다	합계
명	12	6	7	97	5	127
백분율	9.4%	4.7%	5.5%	76.4%	3.9%	100%

- 설문지 권고안에는 경쟁자 수를 좀더 증가시켜 선택지를 조정하였다.

질문 13. 같은 구역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다툰 경험이나 다투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응답은 "아니오"가 74%로 나왔으나, 경쟁이 치열하고 다툼이 있었거나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도둑 맞은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응답은 "아니오"가 74%로 나왔다.

[표] 어르신들 사이의 다툼 경험

	예	아니오	합계
명	33	94	127
백분율	26%	74%	100%

- 같은 수거업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이의 갈등 관계가 가끔 눈에 띄었다.

질문 14. 어르신께만 재활용품을 주는 가게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 14-1. 있다면, 몇 가게 정도 됩니까?

(1) 1~2개 (2) 3~5개 (3) 6~9개 (4) 10개 이상

- 경쟁 심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고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어르신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모아서 수거업체에 파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표] 단골가게 유무

	예	아니오	합계
명	62	65	127
백분율	48.8%	51.2%	100%

- 수거노동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고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주는 가게를 많이 확보하고 계셨고, 수거노동을 하신 기간이 짧은 분들은 단골가게 없이 길거리에서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계셨다.

[표] 단골가게 수

	1~2곳	3~5곳	6~9곳	10곳 이상	기타	합계
명	20	31	5	5	1	62
백분율	32.3%	50.0%	8.1%	8.1%	1.6%	100%

- 고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주는 가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소액의 사례를 하거나, 청소를 해주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9. 수입

질문 15. 하루에 재활용품을 몇 kg 정도 수거하고 계십니까?

- (1) 25kg 미만 (2) 25~50kg (3) 50~75kg (4) 75~100kg (5) 100~150kg
(6) 150kg 이상

○ 하루에 100kg 이하를 수거하는 분들을 합하면 112명(88.2%)이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13,000원 미만을 버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100kg씩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하더라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인 셈으로, 어르신들 대부분이 극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그러나, 어르신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하루에 꼬박꼬박 100kg씩 재활용품을 수거하 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표] 하루 수거량

	25kg-미만	25~50kg	50~75kg	75~100kg	100~150kg	150kg 이상	합계
명	34	31	27	20	11	4	127
백분율	26.8%	24.4%	21.3%	15.7%	8.7%	3.1%	100%

○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하루 수거량을 kg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었다. 질문을 하루 수입금액을 직접 묻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설문지 권고안에 반영)

질문 16.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질문 17. 재활용품을 1kg 당 얼마에 팔고 계십니까?

(평균: 원, 신문지: 원)

○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래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한 개 업체와 고 정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표] 가격대별 업체수

가격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합계
업체수	1	1	6	9	5	3	25
명	8	8	26	53	11	21	127
백분율	6.3%	6.3%	20.5%	41.7%	8.7%	16.5%	100.0%

○ 관악구의 재활용품 1kg 당 가격은 업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다

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평균가격은 130원이다. 어르신들이 거래하는 업체의 재활용품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르신 설문지에서는 이 질문을 삭제해도 되고 업주 인터뷰 때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삼성동, 난향동의 수거업체는 경쟁업체 없이 인근 구역을 독점하고 있어서 가격이 100~110원으로 낮았다. 수거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보라매동, 은천동, 신규업체나 대형 업체의 경우(청룡동, 서림동) 140~150원 대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질문 18. 월 평균 재활용품 수거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만원 미만 (2) 10~20만원 (3) 20~30만원 (4) 30~40만원 (5) 40~50만원
(6) 50만원 이상

○ 월 평균 수입이 40만원 이하인 분들이 115명(90.6%)으로, “질문 15”에 대한 응답과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표] 월 평균 수입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합계
명	41	46	20	8	7	5	127
백분율	32.3%	36.2%	15.7%	6.3%	5.5%	3.9%	100%

질문 19. 월 평균 가계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50만원 미만 (2) 50~100만원 (3) 100~150만원 (4) 150~200만원
(5) 200만원 이상

○ 홀몸노인가구와 노부부 2인가구 대부분이 월 평균 가계 총수입 5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었다. 월 평균 가계 총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분들을 합산하면 98명(77.2%)이다.

[표] 월 평균 가계 총수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모름	합계
명	69	29	4	1	3	21	127
백분율	54.3%	22.8%	3.1%	0.8%	2.4%	16.5%	100%

○ 어르신들과 동거하는 성인자녀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선의 비정규직(건설일용직, 식당, 청소 등)으로 일하고 계셔서 빈곤의 대물림을 보여주고 있다. 어르신들 중 성인자녀들의 수입을 모르는 경우도 16.5%였다.

질문 20.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계 유지 (2) 부업 (3) 용돈 마련 (4) 소일거리 (4) 기타 ()
 질문 20-1. 부업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계신다면, 본업은 무엇입니까?
 ()

○ “용돈 마련”을 이유로 응답한 어르신들은 모두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 자녀들에게 주거와 식사를 의탁하고 있으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계 형편이 안 되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계셨다.

[표] 재활용품 수거노동을 하는 이유

	생계 유지	부업	용돈 마련	소일거리	기타	합계
명	74	5	32	15	1	127
백분율	58.3%	3.9%	25.2%	11.8%	1.8%	100%

○ “생계 유지”나 “부업”을 이유로 꼽은 어르신들 중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9명이었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시설관리(청소) 5명, 우유배달 1명, 공공근로 1명, 학교지킴이 1명, 임대업 1명이었다.

○ “소일거리”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 중 “운동 삼아”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응답자 중 원룸 소유자 1명, 상가전을 소유자가 1명 있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생계 유지를 위해 수거노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컸다.

10. 사회적 욕구

질문 21.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재활용품 감소 (2) 재활용품 무게 (3) 날씨(더위나 추위, 비, 눈 등)
 (4) (교통)사고 위험 (5) 경쟁이나 방해 (6) 기타 ()

○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는 하나, 대부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으며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표] 재활용품 수거노동의 어려움

	재활용품 감소	재활용품 무게	날씨	(교통)사고 위험	경쟁, 방해	기타	모르겠다
명	32	57	14	5	6	21	11

○ 기타 의견 중에는 “장시간 일을 하니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분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비탄 월세 부담, 재활용품 분류의 번거로움, 서울시의 소형 가전제품 수거 독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질문 22. 재활용품 수거를 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재활용품 증가 (2) 전동 카트 (3) 방한복, 장갑
 (4)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5) 수거 구역 보장 (6) 기타 ()

○ “질문 21”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바라는 점 또한 말씀하시는는 하나, 크게 기대하거나 요구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표] 재활용품 수거노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

	재활용품 증가	전동 카트	방한복, 장갑	수거 구역 보장	기타	모르겠다
명	28	39	12	6	13	36

○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은 의외로 없었다.

질문 23. 재활용품 수거 외에 유급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 23-1.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1) 공공근로/희망근로 (2) 보육 (3) 시설관리 (4) 기타 ()

○ “예”와 “아니오” 응답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응답은 상반되지만 응답의 이유는 유사했다.

○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질문 23-1의 응답에서 “공공근로”를 주로 선택하고, “보육”을 한 분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재활용품 수거노동보다 덜 고되고 수입이 나은 일 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다.

○ “아니오”라고 응답한 이유도, 본인이 고령자이고 노동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공식노동에서 배제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

[표] 다른 일자리에 대한 요구

	예	아니오	합계
명	64	63	127
백분율	50.4%	49.6%	100%

[표] 원하는 일자리

	공공근로	보육	시설관리	기타	합계
명	54	0	4	6	64
백분율	84.4%	0%	6.3%	9.4%	100%

○ 원하는 일자리로 “공공근로”를 꼽은 어르신들 중에는 공공근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고령을 이유로 더 이상 공공근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 “보육” 일자리를 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돌봄노동이 고되다는 점, 고령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11. 복지서비스 실태

질문 2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질문 15~질문 20”까지의 수입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을 봤을 때, 재활용품 수거노동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중 대다수가 극빈층에 속해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111명(87.4%)에 달했다. 어르신들이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과 가족중심주의 복지제도(부양의무자 규정)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예	아니오	알 수 없음	합계
명	15	111	1	127
백분율	11.8%	87.4%	0.8%	100%

질문 25.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가 폐지된 후 생긴 제도인데다 수급액이 딱 교통비 수준이라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통비 지원”이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령연금 부부수급자의 경우, 단독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지급하고 있다.

[표]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예	아니오	알 수 없음	합계
명	91	34	2	127
백분율	71.7%	26.8%	1.6%	100%

질문 26. 민간 후원은 받고 계십니까?

(1) 없다 (2) 개인 후원자(□현금/□현물) (3) 사회복지단체 (4) 기타 ()

○ 실태조사 중에 추가한 질문이어서, 초기 응답자 6명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표] 민간 후원 여부

	없다	개인 후원자	사회복지단체	기타	합계
명	93	0	16	12	121
백분율	76.9%	0%	13.2%	9.9%	100%

○ 기타에는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고계신 분이 6명, 단체나 개인이 후원한 쌀을 동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가 5명이었다.

질문 27. 동사무소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 27-1. 있다면, 어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수 선택)

(1) 구직 신청(공공근로 포함) (2) 수급 신청 (3) 기초노령연금 신청
(4) 장애등급 신청 (5) 기타 ()

[표] 복지서비스 요청 여부

	예	아니오	알 수 없음	합계
명	65	61	1	127
백분율	51.2%	48.0%	0.8%	100%

○ “아니오”라고 응답한 분들이 61명(48%)이었다. 오랜 세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해

오셔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약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도 많았다.

[표] 요청한 서비스

	구직 신청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장애등급 신청	기타	무응답
명	39	14	4	4	6	3

- 생계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역시 가장 많았다.
- 기타: 학자금 대출, 건강보험료 미납 상담, 국가유공자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국적취득에 따른 복지 상담, 쌀(김치) 요청 등이 있었다.

12. 주거 실태

질문 28.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혼자 (2) 배우자 (3) 자녀 (4) 배우자+자녀 (5) 기타 ()

-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가정, 조손가정을 합했을 때 88명(69.3%)이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노약자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부양책임을 직계가족에게 맡기고 있다.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①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동시에 부양비를 주지 않는 경우, ② 부양비를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③ 오랜 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지우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4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즉,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비를 주든 안 주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액수의 15%(딸)나 30%(아들)를 간부양비로 책정함으로써 직계존속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표] 동거인

	혼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자녀	기타	합계
명	51	34	28	8	6	127
백분율	40.2%	26.8%	22.0%	6.3%	4.7%	100%

- 기타: 조손가정 3명, 동생, 조카, 친척집 기거하는 분들이 계셨다.
- 가구 구성원 수를 추가로 질문했다라면, 최저생계비 계산, 수급 가능성 검토 등의 자료로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이다.(설문지 권고안에 반영)

질문 29. 관악구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1) 1~5년 (2) 5~10년 (3) 10~20년 (4) 20~30년 (5) 30년 이상

- 관악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92명(72.4%)이었다. 긴 세월 동안 형성된 인적관계 등으로 어르신들의 정주의식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관악구 거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모름	합계
명	15	15	17	28	47	5	127
백분율	11.8%	11.8%	13.4%	22.0%	37.0%	3.9%	100%

질문 30. 살고 계신 집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1) 지층 (2) 단독주택(지상) (3) 다가구 (4) 빌라/다세대 (5) 아파트
(6) 기타 ()

[표] 주택 형태

	지층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다세대	아파트	기타	모름	합계
명	32	32	13	31	13	3	3	127
백분율	25.2%	25.2%	10.2%	24.4%	10.2%	2.4%	2.4%	100%

-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32명(25.2%)이나 된다.
- 무허가주택에 사는 분 2명, 종교시설에 사는 분도 1명 계셨다.

질문 31. 주택 소유 형태는 어떠합니까?
(1) 월세 (2) 전세 (3) 전월세 복합 (4) 자가 소유 (5) 기타 ()

- 전월세 거주자를 합했을 때, 79명(61.1%)이었다. 주택 임대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 대책도 시급하다.
- 기타: 친척집 거주 4명, 임대주택 거주 3명, 종교시설 거주 1명 등이 있었다.

[표] 주택 소유 형태

	월세	전세	전월세 복합	자가 소유	기타	모름	합계
명	17	44	18	38	9	1	127
백분율	13.4%	34.6%	14.2%	29.9%	7.1%	0.8%	100%

[첨부 1]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업(고물상)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0년 9월 29일(수)~10월 29일(금)
- 조사방법: 재활용품 수거업체(고물상) 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

1. 응답자 특징

- (1) 총 29개 업체 중 25개 업체 조사(86.2%)
- (2) 미조사 업체: 조사 거절 2, 업주 부재중 1, 업주 중복 1
- (3) 업주 추산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총수: 약 1,000명 규모로 추정(동별 평균 48명)

(4) 소재지

동	신림	보라매	은천	청룡	중앙	행운	낙성대	인문	신사	조원	미성	난향	신원	서림	삼성	대학	합계
수	1	2	4	2	1	1	1	2	1	2	3	1	1	1	1	1	25

2. 재활용품 1kg 당 매입 가격

○ 업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은 130원이다.

[표] 가격대별 업체수

가격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합계
업체수	1	1	6	9	5	3	25

3. 어르신들이 수거업체를 방문하는 시간대 (복수 응답)

○ 대체적으로 야간에 수거하시는 분들은 아침식사 전, 주간에 수거하시는 분들은 저녁식사 전에 고물상에 들러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어르신들의 수거업체 방문 시간

	조식 전	중식 전	석식 전	대중없음	무응답
응답수	14	1	11	4	4

4. 계절에 따른 경기 변화 (복수 응답)

- 봄, 가을은 이사, 건축 등의 증가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한다.
- 계절보다는 전체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는 응답을 9명이 했다.
- 기타 의견으로 명절 전후 1명, 장마철 외 1명이 있었다.

[표] 계절 경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
응답수	12	3	10	0	12

5. 서울시의 폐소형가전제품 수거 독점 조치에 대한 입장

○ 서울시의 소형가전제품 수거 독점 조치: 2009년 12월, 서울시는 도시광산화사업(폐가전제품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의 일환으로 성동구에 SR센터(서울시 위탁사업, 사회적 기업 컨소시엄)를 설립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SR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재활용품 수거업체(고물상) 업주들에게 (어르신들로부터) 소형가전제품을 매입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역에 폐소형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연락하라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부녀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 서울시의 이 조치는 도시광산화사업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며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생계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어르신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선풍기 1대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2~3천원으로 종이박스 2~30kg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맞먹기 때문에, 생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업체도 법적 근거 없이, 소형가전제품을 고물상에 반입하지 말라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84%)으로 확인되었다.

[표] 서울시의 폐소형가전제품 수거 독점 조치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상관 없다	무응답
응답수	0	21	2	2
백분율	0%	84%	8%	8%

6. 수거업계 동향

○ 경기의 장기 침체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폐지 가격이 인상되어 업종 경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신생 업체와 재활용품 수거노동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업체 간, 어르신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 정부에서는 수거업체의 난립, 재활용품(폐기물) 밀수출 사례를 이유로, 재활용품 수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대형 업체, 오래된 업체들은 허가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고, 신생 업체들은 현행 신고제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 대학동의 경우,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고시생 숫자가 줄어 관악구의 다른 동네에 비해 경기 악화 체감율이 높다.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 방안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1) 정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생존을 위한 최소금액일 뿐이다. 최저생계비 비목 중 의식주, 에너지,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지출은 빈곤층이라고 해서 계속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2010년 최저생계비에서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가 91,07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 1월, 오늘연구소에서 실시했던 '관악구 에너지빈곤 가구 실태조사(총 21가구)'에 응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1인가구 2, 2인가구 2)의 광열수도는 모두 10~20만원 구간에 속해 있었다.

빈곤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야 한다.

[표]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속조사 기준, 4인가구 기준)

비목	금액(원)	비율(%)
계	1,363,091	100%
식료품비	512,210	37.6%
주거비	235,085	17.2%
광열수도	91,070	6.7%
가구집기	40,616	3.0%
피복신발	53,938	4.0%
보건의료	59,601	4.4%
교육	61,158	4.5%
교양오락	26,610	2.0%
교통통신	142,964	10.5%
기타소비	83,230	6.1%
비소비지출	56,607	4.2%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의 부양의무자 조항은 빈곤층의 생계 보장 책임을 직계가족에게 맡기고 있다.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주든 안 주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15%(딸) 또는 30%(아들)를 간주부양비로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가 2~3명 있는 어르신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않아

도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수급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자식이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③ 기초노령연금법의 부부수급자 감액제도 폐지

노인 부부가구 중 2인이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노인 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액이 노인가구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때 부부 2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금액이 과거의 교통비 지원을 대체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소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구 연금액을 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서울시

① 폐소형가전제품 수거 독점 조치 재검토

- 현재 SR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에코시티 서울'은 (사)한국전자산업협회,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주)SK가스의 사회적 기업 컨소시엄으로,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외피를 쓰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을 도와주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재활용산업에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기회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광산화, 일자리 창출, 폐소형가전제품의 적정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폐소형가전제품이 가정에서 배출되면 "어르신들→재활용품 수거업체(고물상)→개별 품목 구매업자(일명 나까마)→재활용 공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서울시가 만든 SR센터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60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서울시는 이들의 소득 감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는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내용으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가져가던 것을, 드라이어, 면도기, 선풍기 등 폐소형가전제품을 배출할 때마다 일일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게 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서울시는 폐소형가전제품 수거 프로세스도 정확히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 독점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기존 인력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거 업무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의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폐소형가전제품에 대한 고물상 반입 금지 조치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거업체의 조직적 반대도 있어서, 일부는 고물상으로 반입되고 있고 일부는 SR센터로 수거되고 있는 상태다.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 보장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소형가전제품 수거를 SR센터로 일원화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수거를 허용하고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질보다 일자리의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만든 노인일자리는 월 20~35만원짜리 5~7개월 단기 일자리뿐이다.

-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어르신들의 노동능력에 맞고 생계 보장이 되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3) 관악구(기초자치단체)

①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 중에도 수급 요건이 부합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수급자를 발굴해야 한다.

② 복지예산의 충실한 집행

- 관악구의 2009년 복지예산 미집행 사례

[보도자료] 진보신당 나경채 관악구의원,
'관악구 결식아동지원 절반만 집행, 복지예산 미집행 많아' 문제제기

진보신당 나경채 관악구의원(서림, 서원, 신원동)은 지난 2일 구의회 복지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관악구의 사회복지 예산에서 사회복지적 수혜 항목의 미집행이 많아, 실제로 계획보다 주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사회복지적 수혜'는 사회복지예산 중에 수당, 지원금, 연금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관악구는 2009년 결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82%만 집행해 약 2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청 2009년 결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적 수혜 예산은 예산 대비 95.3%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연금성 예산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관악구청은 정책사업의 집행율은 약 8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중 사회복지적 수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받은 12억 원은 이월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나경채 구의원은 '대상 주민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실제로 주민에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얘기했다.

- 정부와 서울시에서 배정한 복지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관악구에서 복지예산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태태라고 볼 수 있다. 수급자 발굴과 복지예산의 충실한 집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오늘연구소의 후속사업

(1) "따뜻한 집 만들기" 2차 사업

- 2010년 1월에 1차로 실시했던 "따뜻한 집 만들기"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을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어르신들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지원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개별 가구의 주거현황에 맞는 주거개선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현황 점검표를 작성하고, 주거개선이 시급한 순서대로 맞춤형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정기적인 생활 상담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어르신들의 어려움, 수급 가능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연결한다.

- 수거업체 별로 정기적인 방문일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해 나간다.

(3) 수거노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 운반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방한복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다. 안전장비에 대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경험자가 15% 정도 되는 만큼, 안전장비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 전동카트, 방한복,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장갑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개인, 단체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계한다.

(4) 건강개선사업 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 비수급자가 111명(87.4%), 1개 이상 질환자가 108명(85%)로 나타나,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 중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한국계 중국인 할머니도 계셨다.

- 어르신들의 거점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을 함께 할 의료기관을 발굴할 계획이다.

(5) 재활용품 수거 일자리 개선 연구

- 실태조사를 마치고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이 어르신들을 위해, 이 어르신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일”과 “생계”에 대한 대답이어야 할 것이다. 편리한 작업도구, 안전장비 지원 등이 우선 떠오르는 것이나,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고민되지 않으면, 그저 일시적인 수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연구원들끼리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고물상을 하나 차릴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 뚜렷한 것은 없지만 오늘연구소가 만난 127명의 어르신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그 분들과 함께 길을 찾아갈 것이다.

to be continued....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방법

□ 조사의 목적

1. 조사대상지역에 살고계신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규모 추정
2. 어르신들의 노동, 소득, 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3.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발굴
4.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방안 도출

□ 조사의 과정

1. 조사대상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고물상) 파악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

- 청구 내용: 상호, 주소, 사업자 성명, 전화번호

-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기간: 1주일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은 당 소속 지방의원을 통하거나, 지역운동 단체는 친한 지방의원을 통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 환경 업무 담당부서(예: 환경과, 청소환경과)

② 한국폐자원재활용수거협의회 지역지부

- 회원업체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 이 경우에는 비가입 업체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홈페이지: <http://www.karrm.or.kr>

2. 설문지 작성

① 아래에 첨부한 실태조사 설문지 권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의 특성, 알고 싶은 정보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 삭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태조사 일정계획 수립

① 재활용품 수거업체 위치 파악

- 인접한 수거업체를 2~3개씩 묶는다.
- 1순회 때는 하루에 2~3개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다.
- 오늘연구소의 경우, 관악구 전체 29개 업체를 1순회 하는 데 2주일 정도 걸렸다.
- 1순회를 하고나면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수거업체, 어르신들이 거의 안 가는 수거업체가 파악된다.
- 1순회 때 업주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되고 인터뷰 노하루가 생기므로 2순회부터는 하루에 만나는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② 조사 목표치, 기간 설정

- 혼자 다녀도 쑥스럽고 여러 명이 같이 다녀도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우므로 2인 1조가 적당하다.
- 오늘연구소의 경우, 2명씩 2조로 나눠 다녔을 때 하루 최대 15명 정도를 인터뷰했다.
- 목표치 설정: 조사대상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수를 추정하여 그 중 몇 %를 만날 것인지 목표를 정한다.
- 추정 방법: 인구 53만 명인 관악구의 경우, 업주 인터뷰 결과로 추정한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수가 약 900명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지역의 인구와 비교하면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어려우므로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추정방법을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든 100명 정도를 목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하루 면접 인원: 2인 1조로 조사하는 경우 하루 5명, 2인 2조로 조사하는 경우 하루 10명 정도를 잡으면 될 것이다.
- 실태조사 기간: "(총 목표치÷하루 면접 인원)÷1주일" 정도로 여유 있게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4. 1일 조사원 모집

- ① 정해진 조사원들 외에 당원, 단체인원들(특히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일 조사원을 모집하여 참여 시간표를 작성한다.
- ③ 오늘연구소의 경우, 조사 기간 중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진보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안내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 ④ 1일 조사원 참여시간은 2~3시간이 적당하다.

5. 사전 준비

- ① 관련 법률 공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폐기물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
- ② 사진, 동영상 촬영을 위해 조별로 한 개씩 카메라를 준비한다.
- ③ 어르신들께 드릴 간식(빵이나 과자, 사탕 등) 준비: 수거업체에 커피 자판기(무료)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음료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동시에 여러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원들이 항상 설문지를 지참한다.

6. 실태조사 실시

① 수거업체 방문

- 어르신들께서 거리에서 일하실 때는 인터뷰하기 어려우므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좋다.
- 어르신들이 수거업체에 오시면, 재활용품 무게를 재고 업주에게 판매대금을 받으므로, 그 과정을 마치면 인터뷰를 요청한다.
- 방문 시간: 야간과 새벽에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침식사 전, 주간에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은 저녁식사 전에 수거업체에 많이 오시므로 오전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6~8시 사이, 오후에는 3~6시 사이가 적당하다.
- 할머니들은 대부분 카트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기 때문에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으므로, 수거업체에 하루에도 3~4번씩 오신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업체별 특성은 실태조사를 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

② 업주 설문조사

- 수거업체에 처음 방문할 때, 업주에게 실태조사의 목적(수거업체 현황 파악 & 어르신 실태조사)을 설명하고 인터뷰 시작한다.
- 업주 인터뷰를 하고 나면 수거업(환경정책) 관련 지역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인터뷰 하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 조사대상지역의 수거업체 업주 인터뷰를 모두 해야 어르신들의 총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업주가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하여 인터뷰해야 한다.
- 2개 조가 같이 다니는 경우, 조사 책임자가 업주 인터뷰를 하고 다른 조는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 된다.
- 업주와 명함을 교환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한다.

③ 어르신 설문조사

- 업주나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은 설문지의 질문을 그대로 읽지 말고 쉬운 언어로 대화하듯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설문지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조사원은 설문지 전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화의 흐름에 맞춰 설문 문항을 오가며 설문지를 작성한다.
- 어르신들의 생애사 전반을 들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후속사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어르신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파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 수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하루에 얼마 버세요?"라든가 "오늘 얼마 버셨어요?" 등으로 질문을 변형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수급자인지를 묻는 질문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는 "정부(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지원 받으세요?" 등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물어본다.
- 질문자 외의 조사원은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틈틈이 사진 촬영을 하다가, 다른 어르신이 오시면 그 분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마친 조사원이 사진 촬영, 이런 식으로 역할을 번갈아가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 대체적으로 할머니들이 인터뷰에 잘 응해주시고, 할아버지들은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일단 인터뷰에 응한 어르신들은 답변을 잘해주시므로 신상정보를(휴대전화번호까지) 꼼꼼히 파악한다.

7. 설문조사 결과 입력

- ① 매일 입력하는 것이 좋다.
- ② 설문 항목 외의 생애사, 개인별 특징도 자세히 기록해 둔다.
- ③ 입력한 개인별 데이터와 입력을 마친 설문지에 동일한 번호를 기입해 두면, 추후에 검색, 대조하기 편리하다.
- ④ 오전에는 자료 입력 및 내근 업무, 오후에는 실태조사의 패턴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다.

8. 통계 처리

9. 보고서 작성

※ 업계 용어의 뜻

파지: 재활용품의 통칭

딸딸이: 카트

물랭이: 플라스틱류

나까마: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특정 품목(컴퓨터 부품, 모터 등)만 구매해 가는 상인

[첨부 2]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권고안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조사일	
조사원	
업체명	

질문 1.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 1년 미만 (2) 1~5년 (3) 5~10년 (4) 10~15년 (5) 15년 이상

질문 2. 하루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 (1) 4시간 미만 (2) 4~8시간 (3) 8~12시간 (4) 12시간 이상

질문 3. 재활용품 수거는 하루 중 주로 언제 하십니까?

- (1) 야간~새벽 (2) 새벽~오전 (3) 오전 (4) 오후 (5) 오전~오후 (6) 오후~야간
(7) 수시로

질문 4.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일주일에 며칠 일하십니까?

- (1) 4일 이하 (2) 5일 (3) 6일 (4) 7일

질문 5. 같은 구역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1) 없다 (2) 5명 이하 (3) 5~10명 (4) 10~20명 (5) 20명 이상

질문 6. 같은 구역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다투신 경험이나 다투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7. 어르신께만 재활용품을 주는 가게나 이웃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7-1. 있다면, 몇 가게(집) 정도 됩니까?

- (1) 1~2개 (2) 3~5개 (3) 6~9개 (4) 10개 이상

질문 8. 일하시는 중, 식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 (1) 집 (2) 경로당 (3) 복지관 (4) 도시락 (5) 고물상 (6) 기타 ()

질문 8-1. 식사로 어떤 것을 드십니까?

- (1) 밥 (2) 라면 (3) 빵 + 우유나 음료수 (4) 기타 ()

질문 9.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 (1) 카트 (2) 리어카 (3) 트럭 (4) 기타 ()

질문 10. 장갑을 끼고 일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10-1.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장갑 사는 데 돈이 드니까 (2) 불편해서 (3) 기타 ()

질문 11.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12-1. 있다면,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복수 선택)

- (1) 종이에 손을 베었다 (2) 넘어지거나 미끄러졌다 (3) 손목, 허리, 발목 등을 베었다
(4)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당한 적이 있다 (5) 기타 ()

질문 12-2.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복수 선택)

- (1) 타박상 (2) 출혈 (3) 골절 (4) 뇌진탕 (5) 기타 ()

질문 13.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복수 선택)

- (1) 없다 (2) 암 (3) 근골격계질환(관절염, 골다공증) (4) 당뇨병 (5) 간염
(6) 백내장 (7) 치아 질환 (8) 호흡기계질환(천식, 결핵)
(9) 순환기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 (10) 기타 ()

질문 14. 재활용품을 1kg 당 얼마에 팔고 계십니까? () 원

질문 15. 1일 평균 재활용품 수거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3천원 미만 (2) 3천원~5천원 (3) 5천원~7천원 (4) 7천원~1만원

(5) 1만원~1만5천원 (6) 1만5천원~2만원 (7) 2만원 이상

질문 16. 월 평균 재활용품 수거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만원 미만 (2) 10~20만원 (3) 20~30만원 (4) 30~40만원 (5) 40~50만원
- (6) 50~60만원 (7) 60만원 이상

질문 17. 월 평균 가게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30만원 미만 (2) 30~50만원 (3) 50~100만원 (4) 100~150만원
- (5) 150~200만원 (6) 200만원 이상

질문 18.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계 유지 (2) 부업 (3) 용돈 마련 (4) 소일거리 (4) 기타 ()

질문 18-1. 부업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계신다면, 본업은 무엇입니까?

()

질문 19.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 (1) 수거할 재활용품이 적다 (2) 운반하기에 무겁다 (3) 많이 걸기 때문에 피곤하다
- (4) 날씨(더위, 추위, 눈, 비) (5) (교통)사고 위험 (6) 경쟁이나 방해
- (7) 기타 ()

질문 20. 재활용품 수거를 함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 (1) 재활용품 증가 (2) 전동 카트 (3) 파스 등 약품 (4) 방한복, 장갑
- (5)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6) 수거 구역 보장 (7) 기타 ()

질문 21. 재활용품 수거 외에 유급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21-1.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 (1) 공공근로 (2) 학교지킴이 등 공공 노인일자리 (3) 청소 (4) 기타 ()

질문 22. 수급자이십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23.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24. 민간 후원은 받고 계십니까?

- (1) 없다 (2) 개인 후원자(□현금/□현물) (3) 사회복지단체 (4) 종교단체
- (5) 기타 ()

질문 25. 동사무소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질문 25-1. 있다면, 어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수 선택)

- (1) 구직 신청(공공근로 포함) (2) 수급 신청 (3) 기초노령연금 신청
- (4) 장애등급 신청 (5) 기타 ()

질문 26.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1) 혼자 (2) 배우자 (3) 자녀(+손자녀) (4) 배우자+자녀(+손자녀) (5) 손자녀
- (6) 친구 (6) 친척()

질문 27.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6명 이상

질문 28. ○○시/군/구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 (1) 5년 미만 (2) 5~10년 (3) 10~20년 (4) 20~30년 (5) 30년 이상

질문 29. 살고 계신 집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 (1) 지층 (2) 단독주택(지상) (3) 다가구 (4) 빌라/다세대 (5) 아파트
- (6) 기타 ()

질문 30. 주택 소유 형태는 어떠합니까?

- (1) 월세 (2) 전세 (3) 전월세 복합 (4) 임대주택 (5) 자가 소유
- (6) 기타 ()

성함		성별	남 / 여	연세	
연락처 (휴대전화)			거주동 (주소)		

재활용품 수거업체 실태조사 권고안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조사일	
조사원	
업체명	

질문 1. 재활용품 수거업을 하심에 있어 요즘 경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2.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현안(이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3. 귀 업체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질문 4. 재활용품 1kg 당 얼마에 구매하십니까?

질문 5. 어르신들이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오십니까?

(1) 아침식사 전 (2) 점심식사 전 (3) 저녁식사 전 (4) 수시로

질문 6. 1년 중 언제 재활용품 물량이 가장 많습니까? (복수 선택)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5) 명절 전후

질문 6-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이사 (2) 건축 (3) 날씨(더위) (4) 기타 ()

질문 7. 수거업에 몇 년 정도 종사하셨습니다?

질문 8. 수거업을 하심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빨리 늙고, 불안정한 관악구 노인 Working-Poor의 현주소를 보여주다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이 토론문은 미리 받은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실태 조사결과'(이하 조사 결과)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① 실태조사 결과의 의의와 한계 ② 노인 일자리의 현주소 ③ 바람직한 지역 노인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어려운 지역정치의 한계에서도 새로운 생활형 의제의 발굴, 1달에 걸친 설문조사, 대안마련에 고심한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재활용품 수거노동,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밝히다.

조사결과는 대체로 관념적으로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각인된 '상식'을 재확인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은 '공익일자리에서도 밀려난 고령의 노인이 생계를 위해 가장 속련도가 떨어지는 수거노동을 선택했다'는 것이며, 이들에게 수거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배제(사회적 조건에서도 경제적 조건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의 배제)상황에서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악구에서 수거노동을 하는 노인들은 70세 이상으로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카트를 끌며 75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한달에 30만원 미만의 생계비(혹은 용돈)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20년이 넘도록 일한 분도 있지만 많은 수가 5년 미만의 노동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을 앓으면서 교통사고 등의 외인성 질환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정책과 수거노동의 상관관계인데, 우선 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일 자리에 '고령'을 이유로 배제되었고 도시광산화 사업과 같이 값어치있는 재활용품의 수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익감소라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생계를 위해 수거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주거 형태가 전세나 자가 소유가 50%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재산 제한이나 부양

자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공공정책은 적어도 수거노동 노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상식적임에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층에 대한 공공정책의 한계가 날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제의 영역을 비공식경제라 정의한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비공식경제는 GDP, 즉 계량화된 경제지표상의 수입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없는 노동'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수거노동을 단순히 비공식 경제의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통상적인 비공식경제의 노동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비공식경제의 주요한 부분은 공식화되기 어려운 경제영역 즉 범죄와 연관되었다는 등의 조건(그래서 밀수, 마피아 등 조직폭력단체와 연관된 매춘, 마약 등의 거래행위 등이 비공식경제의 큰 부분에 속한다)에 기인하는 영역이다. 즉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비공식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수거노동의 경우에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편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즉 생존형 비공식경제라는 것이다.

통상 도시경제학에서는 이중경제이론이라고 해서, 공식적 경제체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역으로서 비공식 경제체제를 대비시키는 듯하다. 특히 사센Sassen과 같은 도시이론가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내의 가내수공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사치품의 소비, 즉 도시의 소비능력 향상에서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특정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일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의 한계는 대부분 도시의 구조적 관점에 치중해서 인데, 그래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편입된 상황 자체를 '자연스러운 도시화'의 한 단계로 치부하는 오류가 생긴다.

하지만 '오늘'에서 조사한 수거노동에 대한 결과는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각종 수치로 떠들었던 숫자의 이면, 즉 날 것으로 노인일자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준다. 이 조사결과는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증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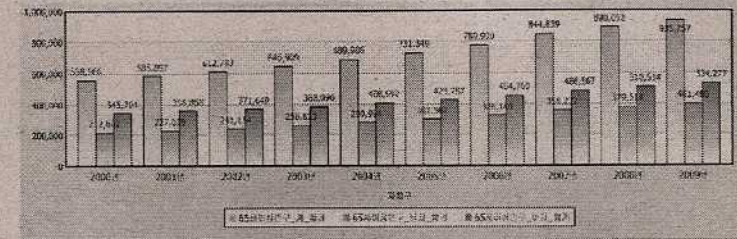
2. 관악구의 고령화와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주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는 눈에 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미래여명이 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노령인구는 계속 늘 수밖에

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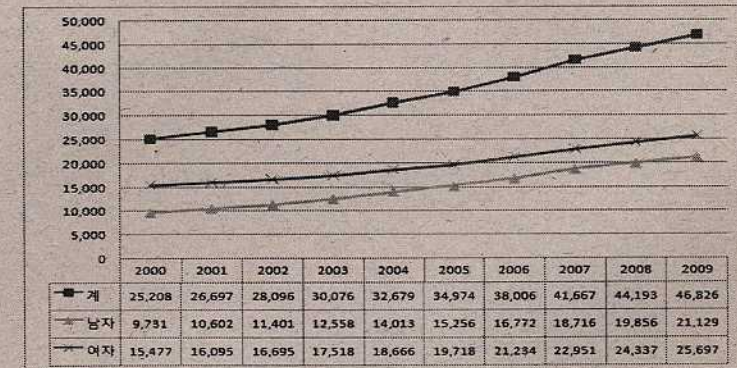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1을 보면,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서울시 전체인구는 천만명 전후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3만명, 4만명, 5만명, 6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비로 보면 남녀가 2:3의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1] 서울시의 노령인구 추이 (서울통계)



이런 추세는 관악구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2000년에 비해 2009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85.8%나 증가해 46,8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관악구의 노령인구 추이



문제는 관악구의 노령화 속도가 서울시의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1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와 관악구의 노령화지수를 교차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00년만 하더라도 관악구의 노령화지수는 서울시의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2003년부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후에는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년부양비는 3%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는데 반해 노년부양비가 평균보다 낮은 것은 다행스러운 지표다. 이는 유년총과 청장년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위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즉 관악구의 인구구성 추이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보다 더욱 빨리 늘어가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를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볼 수 있다.

[표1] 서울시 및 관악구의 노령화 지표변화기

연도	구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00년	서울시	24.5	7.1	29.1
	관악구	21.7	6.1	28.2
2001년	서울시	24	7.5	31.3
	관악구	21.2	6.5	30.5
2002년	서울시	23.5	7.9	33.5
	관악구	20.5	6.8	33.5
2003년	서울시	23	8.3	36.2
	관악구	19.7	7.3	37
2004년	서울시	22.5	8.9	39.3
	관악구	19.4	7.8	40.2
2005년	서울시	21.9	9.4	42.9
	관악구	18.8	8.3	44.3
2006년	서울시	21	9.9	47.4
	관악구	18	8.9	49.6
2007년	서울시	20.2	10.7	53
	관악구	17.1	9.7	56.8
2008년	서울시	19.9	11.5	57.6
	관악구	16.8	10.5	62.5
2009년	서울시	19.1	12	62.8
	관악구	16	11.2	70.3

3) ①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②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③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이런 이중적인 특징은 관악구의 노령화지수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9번째에 속하는 것으로 노령화의 속도가 여타 구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년부양비는 밑에서 8번째로 부양부담이 적은 편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령화비율과 노년부양비는 정비례하는 속성을 보이나 관악구의 경우에는 비례관계를 뚜렷이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관악구의 인구지리적 특징-대규모 대학촌 및 고시촌의 존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실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2] 25개 자치구 노령화지수 순위 (2009년 기준)

순위	자치구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	중구	16.2	16.1	99.6
2	종로구	16.9	16.2	96
3	용산구	17.8	15.6	87.6
4	강북구	18.1	15.1	83.7
5	서대문구	18.7	15.2	81.4
6	동대문구	17.7	14.4	81.2
7	동작구	18.2	13.1	71.9
8	은평구	19.9	14	70.5
9	관악구	16	11.2	70.3
10	성북구	19.8	13.8	69.8
11	마포구	19.2	13.1	68.3
12	성동구	19	12.9	67.8
13	영등포구	18.9	12.8	67.8
14	중랑구	18.1	12	66
15	도봉구	19.8	13	65.6
16	금천구	18.2	11.8	64.5
17	구로구	19.7	11.3	57.5
18	광진구	18.3	10.3	56.4
19	강서구	20.1	10.8	54
20	노원구	22.7	12.1	53.2
21	서초구	19.6	10.4	52.8
22	강남구	17.5	9.2	52.8
23	강동구	19.1	9.7	50.7
24	송파구	20.2	9.5	47
25	양천구	22.2	9.7	43.8

문제는 고령화는 사실상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박탈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매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51.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관악구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 비율이 65%에 달하는 반면 소득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거노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소득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노인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3] 노인 월평균소득 현황 (2008년 기준)

자치구	성별	노인 월평균 소득							소득없음
		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서울시	전체	29.4	22.2	10.9	5.2	3.2	1.9	3.1	24.1
	남자	19.9	26.8	15.7	8.6	5.2	3.2	5.4	15.2
	여자	36.7	18.7	7.3	2.7	1.6	0.8	1.4	30.8
관악구	전체	35.4	29.6	11	3.9	4.2	1	3.2	11.9
	남자	26.2	33.1	16.6	6.6	6.7	1.9	4.7	4.2
	여자	43	26.7	6.3	1.7	2.1	0.2	1.9	18.2

실제로 동일한 조사에서 노인층이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설문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55%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관악구의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준비방법을 보면 공공기관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서울시 전체보다 많은 반면, 개인자산을 바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은 낮아 관악구에 임금에 의존한 중산층 인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악구 자체적으로 노후준비의 양극화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4] 서울서베이 상의 노후준비방법 현황 (서울시 전체)

연도	준비 하고 있다	노후준비방법							준비 하고 있지 않다
		공공 기관 연금	보험	은행 저축	개인 연금	부동산 투자	주택 규모 줄임	자녀가 노후 책임	
2005년	60.2	61.1	67.4	47.8	27.7	10.3	4.6	2.7	39.8
2006년	59.6	63	63.3	47.3	26.9	9.8	4.3	2.7	40.4
2007년	59.5	55.5	61.3	54.1	26.4	11.5	4.2	2.3	40.5
2008년	56.7	52.9	67.1	64.1	29.2	11.2	4.1	1.8	43.3

[표5] 서울서베이 상의 노후준비현황 (관악구)

연도	준비 하고 있다	노후준비방법							준비 하고 있지 않다
		공공 기관 연금	보험	은행 저축	개인 연금	부동산 투자	주택 규모 줄임	자녀가 노후 책임	
2005년	57.8	65.6	71.7	54.7	19.6	9.7	2.8	1.6	42.2
2006년	65.7	78.4	62.1	38.1	31.2	7.3	2.3	1.7	34.3
2007년	52	57.3	62.6	55.7	27.8	9.8	2.9	2.6	48
2008년	52.6	58.9	59.8	54.7	20.4	6.3	6.9	1.5	47.4

이런 노령화의 경향은 서울시 차원(관악구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겹친다)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다. 아래의 표6은 작년 서울시가 발표한 일자리 긴급대책에 따른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계획이다. 여기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혹은 공공근로 일자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노인일자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한계다. 아래 표7과 같이 일자리 규모도 규모거니와 임금 수준도 20만원에서 최대 36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오늘'에서 조사한 수거노동의 월 평균 소득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규모는 서울시 노인인구의 단 4%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노인인구 120명당 1명꼴인 셈이다. 결국, 노령화가 노인층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 속에서 현재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표6] 서울시 일자리 사업계획4)

4) 서울시, '서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특별대책', 2009.01.28.

	사업명	인원(명)
공공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사업	42,000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2,400
	공공근로사업	24,100
	소 계	68,500
민간일자리	구인·구직자 연계·알선	16,400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22,300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지원	700
	중소기업 연합공채 실시	700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300
	소 계	40,400
합 계	108,900	

[표7]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 일자리 규모⁵⁾

사업내용	인원 (명)	연 급여 (만 원)	예산 (백만 원)	월 급여 (만 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모니터링단 운영	100	431	431	월36만원
다문화어린이집 보육놀이교사 파견	130	433	563	월36만원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돌보미	130	433	563	월36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도	220	431	948	월36만원
지하철도우미	292	240	700	월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자치구 수행)	10,234	240	24,562	월20만원
	11,106		27,767	

3. 맞춤형 일자리, 보충형 노인복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통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할 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고민한다. 즉 지하철 안전요원이나 학교 등의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는 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층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의 숙련도는 부담스럽다. 즉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노인층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일자리에 노인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일자리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5) 서울시 2010년 예산안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공익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 시니어클럽의 사례]

대구북구시니어클럽(관장 유희종)에서는 지난 5월4일 복구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구암동 일대 150평 부지내에 '행복고물상 녹색사람들'이라는 재활용고물상 작업장을 열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작업장내에는 사무실, 간이집하장, 분리수거장 등을 설치하여 총 40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참여자는 수거팀, 분류팀, 홍보팀에 소속되어져 활동하고 있다. 재활용사업단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신문, 우유팩 등의 파지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페트병, 공병, 고철, 의류 등을 수거·재판매하고 있다. (생략)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자면, 수거노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에게 야광벨트 등을 지급하거나 수거작업에 알맞은 장갑 혹은 카트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훌륭한 보충적 노인복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시광산화와 같이 돈 되는 부분을 공공이 나서서 집적화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성과를 높일 수는 있어도 지역의 비공식 노동 시장을 파괴하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재원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생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선부는 개입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기존의 참여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금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조합 형태의 보충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다.

이상으로 관악구의 노령화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조사가 단 편의 조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관악모형을 만들 수 있는 좀더 심화된 연구로 진척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앞서 장황하게 관악구의 노령화 현황을 살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꽤나 균일한 서울시의 생활공간이 자세히 보면 매우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분포를 지닌 생활권으로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큰 정책 보다는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제로 지역을 바꾸는 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귀중한 고민의 시간이었음을 밝히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린다.

[토론문 2]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읽고

나경채 / 관악구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미 많은 사람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창한 문제에 말 한마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한 진실을 과제로 여기고 연구했던 '오늘'연구소의 첫 연구성과가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오늘 연구소의 조사로 처음 그 규모를 알게 되었지만 관악구는 타 지역에 비해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다.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상황을 접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실천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다. 아울러 수거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다.

1.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시도는 왜 낮은가?

대상자의 60%에 가까운 분들이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에 나서고 있으면서 84% 이상이 이로 인한 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미만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의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요청한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시하는 각종 통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관악구 결산서에 따르면 관악구청의 사회복지적 수혜 예산 중 각종 급여나 연금성 예산을 제외한 정책사업의 집행률은 82%밖에 되지 않았고, 결산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경우는 절반만 집행되었다.

아직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뿐이다. 정부 통계에서도 지난 5년간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5천명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5백명이 증가했다. 관악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교육을 통한 직렬전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전문적인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아래 기사로 볼 수 있는 최근의 노원구 사례처럼 통반장의 업무 조정을 통한 주민복지협의회 창립 등의 사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노원구,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洞 중심 복지공동체 구축"

서울 노원구가 그동안 인원서류 발급처 기능에 머물렀던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개편, 동 중심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

구는 7일 동 주민센터와 지역 내 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구를 연계한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 주민센터가 복지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주민복지협의회 산하에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소득층 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구는 또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인근 주민센터들을 연결한 8개 '권역별 민관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관장과 동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이 협의회는 정신질환, 실업, 알코올 의존증 등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특히 통반장이 지역사회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주민 기부를 받아 차상위계층 등을 돕는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원구의 시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비전문성, 과거에 시행했던 지역유지들과의 부적절한 유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수거노동 환경 개선책

자료를 찾아 보니 서울 남부경찰서, 마포경찰서, 충주경찰서 등에서 수거노동 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안전조끼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적지 않은 비율이 도로로 이동하거나 무단횡단 중이던 폐지수거 어르신이었다는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수가 많은 관악구에서도 이분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구청·경찰서 등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거노동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의 빈곤층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와 함께 복지제도 안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고물상 업주-당사자들의 간담회와 같은 기회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연구소의 이와 같은 노력이 앞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현실의 개선을 우리 모두의 숙제로 삼게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하며 창립과 연구를 위해 들인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